

Big Ears and a Curious Mind: The Art of Listening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July 13, 2023

Aloha MPC ‘Ohana,

It’s July 13, and time for another Thursday Email Devotion.

A few nights ago I was listening to an audiobook about ancient Egypt. One of the Pharaohs whose reign was discussed in the book was a fellow named Sensusret III, who ruled Egypt c. 1836-1818BC. Apparently all of the surviving statues of Pharaoh Sensusret portray him with very large ears. And so, the author of the audiobook explained, this was done deliberately to send a message to his subjects that Pharaoh Sensusret “hears all.” But then the author of the audiobook added another possible explanation. “Or maybe he just had big ears,” she said.

In Pharaoh Sensusret’s case, we’ll probably never know which of those two aforementioned possibilities was actually the case. But hearing about that Pharaoh’s big ears did prompt me to stop and think about listening.

I am painfully aware of the times when I may not be the best of listeners. So I’m trying to be more intentional about really listening to others.

According to organizational leadership specialist Simon Sinek, really listening is about more than just hearing the words someone else may be saying. No, Simon Sinek says, listening is “the art of understanding someone else.”

And to really do that – to really practice the art of listening – all comes down to one word, Simon Sinek says. The word *curiosity*.

What is this other person thinking, who’s talking to me? What idea(s) are they trying to express? What makes them tick? I wonder why they feel the way they do about this or that? What do they believe is at stake in this conversation? What do they want me to understand? Perhaps I need to ask them to tell me more...

Questions like these are the questions that a curious mind asks. And apropos of our Sunday morning sermon topics this summer, I think questions like these are questions which the Mind of Christ asks too. Because I believe the Mind of Christ is a mindset which values curiosity.

I can’t remember where, but not too long ago someone asked me if I think curiosity is a good thing or a bad thing. And I answered that I believe curiosity is a *holy* thing. Here’s why:

When Moses first saw the burning bush, the Book of Exodus says that he stopped and turned aside and walked over to take a closer look (Exodus 3:3). Because *Moses wanted to find out more* about this burning bush phenomenon that he was seeing. To me, that’s a telltale sign that Moses was curious. And so it was that curiosity which led Moses to “holy ground,” the story says.

And based upon that, I have a hunch that, if my ears can be big enough and if my mind can be curious enough, then practicing the art of listening might lead me to “holy ground” too. And that would be a good thing.

Me ke aloha,
Pastor Ron

큰 귀와 호기심 많은 마음: 경청의 기술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오전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7월 13일, 또 다른 목요일 이메일 묵상 시간입니다.
며칠 전 나는 고대 이집트에 관한 오디오북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논의된 파라오 중 한 명은 이집트를 다스린 세누스레트 3세였습니다. 1836-1818BC.
파라오 Senusret의 살아남은 모든 동상은 그를 매우 큰 귀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의 저자는 이것이 파라오 세누스레트가 ”모든 것을 듣는다”는 메시지를 그의 주제에 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디오북의 저자는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귀가 컸을 수도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Pharaoh Senusret의 경우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가능성 중 실제로 어떤 것이 사실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파라오의 큰 귀에 대해 들으면서 나는 멈추고 귀를 기울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최고의 청취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정말로 경청하는 것에 대해 더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 리더십 전문가인 Simon Sinek에 따르면, 진정으로 듣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 이상입니다.
아니요, Simon Sinek은 듣기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즉 실제로 경청하는 기술을 연습하는 것 모두가 한 단어로 귀결된다고 Simon Sinek은 말합니다.
호기심이라는 단어.
_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상대방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려고 합니까?
무엇이 그들을 똑딱 거리게 합니까?
나는 그들이 이것 또는 저것에 대해 그들이 하는 방식을 느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들은 이 대화에서 무엇이 위협에 처해 있다고 믿습니까?
그들은 내가 무엇을 이해하기를 원합니까?
아마도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_
이와 같은 질문은 호기심 많은 마음이 묻는 질문입니다.
이번 여름 주일 아침 설교 주제와 관련하여 저는 이와 같은 질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도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호기심을 중시하는 마음가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딘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얼마 전에 누군가 나에게 호기심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호기심이 _신성한_ 것이라고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처음 보았을 때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려고 걸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출애굽기 3:3).

모세는 자신이 보고 있는 불타는 떨기나무 현상에 대해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그것은 모세가 호기심을 가졌다는 숨길 수 없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룩한 땅"으로 이끈 것은 바로 그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 귀가 충분히 크고 내 마음이 충분히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면 듣는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나도 '성지'로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알로하,

론 목사